

2025년 4/4분기 경기도 고용동향 분석

< 요약 >

- 4/4분기 경기도의 취업자 증가는 전년동기 대비 7천명에 그쳐 지난 3/4분기(△3천명 감소)와 유사한 취업자 증가 부진이 계속되었으며, 전국 역시 지난 3/4분기와 비슷한 19만5천명 증가하여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 경기도의 4/4분기 취업자 증가가 부진한 이유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경기도에 집중되었고, 전국은 내수 회복에 따라 도소매·숙박음식점업과 운수·창고업 취업자가 확대되었으나, 경기도는 '24년도의 내수 침체가 상대적으로 완만하였으므로 취업자 증가폭도 작은 규모에 그쳤기 때문임
-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유독 경기도에 집중된 원인은 금속가공, 기타 기계·장비 등의 비중이 높은 경기도의 산업특성에 있으며,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내수경기 업종에서 경기도 및 전국 취업자 증가세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이 4/4분기 고용동향의 특징임

1

거시경제 경기상황

- 4/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비 1.6%로 3/4분기의 전년비 1.8% 성장에 이어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로는 소폭 하락($\Delta 0.2\%$)하였으나, 이는 3/4분기의 이례적인 급성장(1.3%)에 대한 반락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며,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을 분기별이 아닌 반기별로 계산해 보면 상반기(0.2%)보다 하반기(0.5%)가 높아 경기는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1> 경제성장률 (계절조정 전기비 및 전년 동기비)

(단위: %)

경제성장률	2024		2025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절조정 전기비	0.1	0.1	-0.2	0.7	1.3	-0.2
전년 동분기 대비	1.4	1.1	0.0	0.6	1.8	1.6

자료: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2026.03.10.)

- 산업별로는 제조업 회복세는 둔화되고 건설업의 극심한 부진이 계속되었으나, 소비 회복세는 유지되어 4/4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전년비 1.9%로 3/4분기와 동일하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비 2.7% 성장으로 3/4분기(2.3%)보다 성장세가 확대
- 수출은 2/4분기와 3/4분기의 높은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유지하지 못하고 4/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Delta 1.7\%$ 로 반전되었으나, 이전 분기의 높은 성장률에 힘입어 전년비 성장률은 4.3%로 높은 수준을 유지
- 4/4분기 제조업 생산은 2/4분기(2.5%)와 3/4분기(1.5%)의 높은 전기비 성장에서 주춤하여 전분기 대비 $\Delta 1.5\%$ 로 둔화되었으나, 이전 2분기의 강한 회복세에 힘입어 전년비 성장률은 1.9%로 양호한 수준을 달성
- 건설업은 4/4분기에도 여전히 부진하여 전분기 대비 $\Delta 4.5\%$ 로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Delta 7.7\%$ 의 극심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민간소비는 3/4분기 전분기 대비 1.3%의 대폭 성장 이후 4/4분기에도 전기비 0.3% 성장으로 회복세를 지속하여 4/4분기 전년비 성장률은 3/4분기와 같은 1.9% 달성

○ 이에 따라, 서비스업 생산도 3/4분기의 전분기 대비 1.4% 성장에 이어 4/4분기에 전분기 0.6% 추가 성장함으로써 전년비로는 2.9%로 높은 성장을 달성

<표 1-2> 계절조정 전기비 분기별 성장률 (실질)

(단위: %)

경제성장률	2024		2025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내총생산(GDP)	0.1	0.1	-0.2	0.7	1.3	-0.2
민간소비	0.4	0.2	-0.1	0.5	1.3	0.3
수 출	0.0	0.6	-0.6	4.5	2.1	-1.7
제조업	0.0	0.1	-0.6	2.5	1.5	-1.5
건설업	-3.0	-4.4	-0.4	-3.6	0.7	-4.5
서비스업	0.4	0.3	-0.2	0.8	1.4	0.6

자료: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2026.03.10.)

<표 1-3> 전년 동분기 대비 분기별 성장률 (실질)

(단위: %)

경제성장률	2024		2025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내총생산(GDP)	1.4	1.1	0.0	0.6	1.8	1.6
민간소비	1.3	1.1	0.6	0.9	1.9	1.9
수 출	6.4	3.5	1.5	4.5	6.6	4.3
제조업	3.5	2.0	0.4	2.1	3.6	1.9
건설업	-6.5	-6.9	-12.5	-10.9	-7.5	-7.7
서비스업	1.4	1.5	0.7	1.3	2.3	2.7

자료: 한국은행, 2025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2026.03.10.)

- 4/4분기 취업자 증가는 전국과 경기도 모두에서 전분기와 유사하여, 전국은 3/4분기 (전년비 21만7천명 증가)와 비슷한 19만5천명 증가하였으며, 경기도 역시 3/4분기 (전년비 △3천명)와 비슷한 7천명 증가<표 2-1>
- 전국 취업자 전년비 증가율은 3/4분기 0.8%, 4/4분기 0.7%로 각 분기 경제성장률 1.8%, 1.6%에 상응하는 수준
- 경기도의 4/4분기 취업자 증가율은 0.1%로 3/4분기(0.0%)에 이어 저조하였으며, 15세 이상 인구증가율(1.2%)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
 - 취업자 증가에서 경기도 비중도 4/4분기 3.6%로 3/4분기에 이어 크게 하락
 - 이러한 추이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경기도에 집중된 결과

<표 2-1> 전국과 경기도 취업자 증가폭 (전년비)

(단위: 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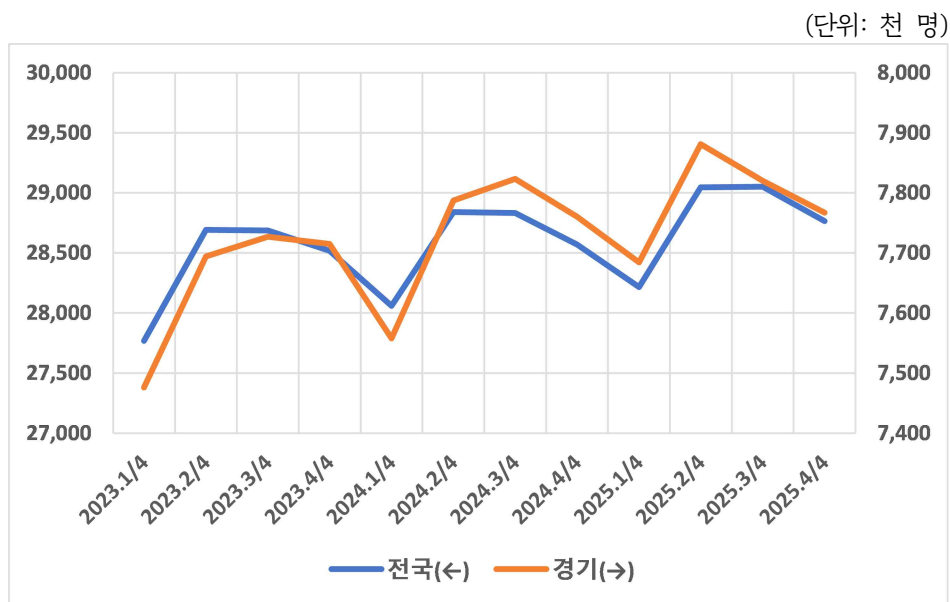
구분	2024		2025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경기도	96	45	126	94	-3	7
전국	146	52	155	207	217	195
경기도/전국 (%)	65.8	86.5	81.3	45.4	0.0	3.6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기도의 전년비 취업자 증가는 3/4분기 △3천명에 이어 4/4분기에도 7천명으로 약 20만명씩 증가한 전국에 비하여 매우 부진하였는데 그 이유는 '25년 하반기 전국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거의 경기도에서 일어난 반면, 1년전인 '24년 하반기에는 경기도의 취업자 증가가 비교적 양호하였었기 때문임
- 전국과 경기도의 취업자 추이를 비교하면, 전국 취업자는 3/4분기에 2/4분기에 비하여 낮지 않으나, 경기도는 3/4분기에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그림 2-1]
 - 3/4분기에는 2/4분기에 비하여 전국은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감소하고 보건·복지, 운수·창고, 스포츠·여가 등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하는 구조인데, 제조업 취업

자 감소는 거의 경기도에만 집중되었음

- 4/4분기에도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경기도에 집중되었으며 계절적 요인으로 보건·복지 등 취업자가 감소하며 전국과 경기도에서 취업자는 비슷하게 감소
- 반면 '24년 3/4분기 경기도 취업자수는 2/4분기보다 오히려 많았으며 4/4분기에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여 '25년 하반기 경기도의 전년비 취업자 증가 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24년 2/4분기에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탈,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1] 전국과 경기도 취업자

- 4/4분기 경기도 제조업 취업자는 전국과 비슷한 규모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반면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각 지역에서 계속됨
 - 3/4분기와 4/4분기에 경기도 제조업 취업자 감소 규모는 각각 △5.3만명과 △4.9만명으로 각 기간 전국 제조업 취업자 감소 규모인 △5.1만명과 △4.7만명과 비슷
 - 3/4분기 이후 서울의 제조업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전국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거의 경기도 지역에서 일어남. 반면 경남 지역은 제조업 취업자가 증가세로 전환
 - 건설업 취업자는 감소세가 계속되어 전국은 3/4분기 △10.6만명에서 4/4분기 △10.2만명으로, 경기도는 3/4분기 △2.0만명에서 4/4분기 △1.0만명 감소

- 서비스업에서는 내수 회복에 따라 도소매·숙박음식업과 전기·운수·통신업 취업자 증가세는 확대되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 기타’ 취업자 증가폭은 축소되어 전체적으로 4/4분기 취업자 증가폭은 전분기와 유사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내수 회복으로 전국과 경기도에서 모두 4/4분기에 3/4분기에 비하여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어 경기도는 3/4분기 1.9만명에서 4/4분기 3.8만명, 전국은 △1천명에서 4/4분기 2.6만명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
 - 전국의 세부 산업별 취업자 추이를 보면 숙박음식점업은 전년비 감소폭이 3/4분기의 △15천명에서 4/4분기 △7천명으로 축소되었고, 도소매업 취업자는 중장기적인 감소세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3/4분기의 1.3만명 증가에서 4/4분기에는 3.4만명으로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되어 내수 회복을 반영
- 전기·운수·통신·금융 취업자는 전국과 경기 모두에서 4/4분기에 증가폭이 확대되어 전국은 3/4분기 5.3만명에서 4/4분기 9.9만명으로, 경기도는 1.4만명에서 5.1만명으로 증가폭이 확대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기타’ 취업자는 4/4분기에 전국과 경기도에서 모두 증가폭이 축소되어 전국은 3/4분기 46.9만명에서 4/4분기 35.2만명 증가로, 경기도는 3/4분기 8.2만명 증가에서 4/4분기 1.7만명 증가로 증가폭이 축소
 - 전국 세부 산업별 취업자 증가폭을 살펴보면 전년비 증가폭은 3/4분기보다 11.7만명 축소되었는데, 산업별로는 보건·복지에서 2.9만명, 교육에서 3.3만명이 축소

<표 2-2> 산업별 취업자: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증감 (단위: 천 명)

구분		전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숙박음식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전기·운수·통신·금융
전국	'24.4/4	52	-75	-115	-89	229	125
	'25.1/4	155	-81	-173	-14	345	104
	2/4	207	-91	-118	-27	455	124
	3/4	217	-67	-102	-1	469	53
	4/4	195	-51	-106	26	352	99
경기	'24.4/4	45	-47	-44	52	48	41
	'25.1/4	126	-22	-60	65	102	61
	2/4	94	-33	-32	25	130	61
	3/4	-3	-53	-20	19	82	14
	4/4	7	-49	-10	38	17	51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1) 제조업

- 전국 제조업 취업자는 3/4분기의 $\Delta 6.7$ 만명에서 4/4분기에는 $\Delta 5.1$ 만명으로 전년비 감소폭이 축소되었고, 경기도 제조업 취업자도 $\Delta 5.3$ 만명에서 $\Delta 4.9$ 만명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으나,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오히려 더욱 경기도에 집중되고 있음
- 전국의 제조업 취업자 감소(전년비)는 2/4분기 $\Delta 9.1$ 만명 → 3/4분기 $\Delta 6.7$ 만명 → 4/4분기 $\Delta 5.1$ 만명으로 감소폭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 경기도의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은 같은 기간 $\Delta 3.3$ 만명, $\Delta 5.3$ 만명, $\Delta 4.9$ 만명 등 비슷한 폭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음
 - 각 시도 중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컸던 서울의 감소폭이 2/4분기 $\Delta 13.0$ 만명에서 3/4분기 $\Delta 4.9$ 만명, 4/4분기 $\Delta 7$ 천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따라 경기도가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가장 큰 시도가 됨
 - 경남은 제조업 취업자 증가세를 지속(3/4분기 3.5만명 → 4/4분기 2.4만명)
- 시도별 제조업 취업자 감소 양상의 차이는 제조업 업종별 경기의 차이를 반영
 - 서울의 제조업에서 비중이 높은 섬유 및 가죽 제조업은 4/4분기 4.2% 성장
 - 반면 경기도 제조업에서 비중이 큰 금속가공(-2.0%), 기계 및 장비(-3.1%)의 성장률은 저조
- 경기도에서 비중이 큰 금속가공, 기타 기계 및 장비, 플라스틱 등 산업들에서는 중국 수입 제품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표 3-1> 분기별 시도별 제조업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 동기 대비	2024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국	36	48	-31	-75	-81	-91	-67	-51
서울	42	41	-31	-83	-111	-130	-49	-7
경기도	-83	-48	-54	-47	-22	-33	-53	-49
경남	28	45	40	21	16	15	35	24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2) 건설업

- 4/4분기 건설업은 계속 부진하여 전국 취업자는 전년비 10만6천명(△5.2%) 감소하였으며, 경기도는 1.0만명 (△1.7%) 감소하여 감소세가 지속
- 경기도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3/4분기의 △2.0만명에서 4/4분기에는 △1.0만명으로 감소하여 감소폭은 다소 축소
-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특정 시도에 취업자 감소가 집중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표 3-2> 분기별 시도별 건설업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 동기 대비	2024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국	43	-36	-89	-115	-173	-118	-102	-106
(전년비, %)	2.1	-1.7	-4.2	-5.3	-8.3	-5.7	-5.0	-5.2
경기도	33	22	-18	-44	-60	-32	-20	-10
(전년비, %)	5.8	3.8	-3.0	-6.9	-10.0	-5.3	-3.4	-1.7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3) 도소매·숙박음식점업

- 전국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4/4분기에 24년1/4분기 이래 7분기 연속된 감소세를 벗어나 전년비 2만6천명 증가로 반전되었으며, 경기도는 3/4분기의 1.9만명 증가가 3.8만명 증가로 확대되어 민간소비 회복세를 반영
- 전국 도소매업 취업자는 ‘24년 2/4분기부터 ’25년 1/4분기까지 큰폭의 감소세를 지속한 이후 2/4분기부터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며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는 증가세가 확대되어 민간소비 회복세를 반영
 - 전국 도소매업 취업자는 중장기적 감소세이므로 4/4분기의 증가세는 이례적
- 전국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도 금년 3/4분기의 감소세 축소에 이어 4/4분기에는 전년비 △7천명 감소로 감소폭이 더욱 축소

<표 3-3> 도소매·숙박음식업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전년 동기 대비	2024				202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국 도소매·숙박음식	-5	-2	-45	-89	-14	-27	-1	26
전국 도소매업	-4	-54	-74	-111	-60	8	13	34
전국 숙박음식점	-1	52	28	21	46	-34	-15	-7
경기 도소매·숙박음식	49	93	69	52	65	25	19	38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탈,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기도 도소매·숙박음식업 취업자는 전국 추이와는 달리 큰 침체 없이 '24년부터 증가세를 지속하였는데 4/4분기에 증가폭은 3만8천명으로 다시 확대
- 경기도 도소매·숙박음식업은 전국 추이와 달리 '24년에 큰 침체를 겪지 않았고, '25년에는 큰 등락 없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 4/4분기 전국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의 전년비 증가폭은 9만9천명(2.7%)으로, 3/4분기의 5만3천명(1.4%)보다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었는데,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과 운수·창고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어 내수 회복을 반영하고 있음
- 경기변동에 민감한 운수·창고업은 4/4분기 증가율이 3/4분기의 0.8%(1.4만명)에서 4/4분기에는 2.5%(4.2만명)로 크게 확대
- 정보·통신업 역시 3/4분기의 $\Delta 0.4\%$ ($\Delta 5$ 천명) 감소에서 0.7%(8천명) 증가로 반전
- 금융·보험은 3/4분기 4.4%(3.4만명)에서 4/4분기 4.6%(3.6만명)로 거의 같은 수준

<표 3-4> 전국 전기·운수·통신·금융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전년 동기 대비	2024				2025				비중*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국 전기·운수·통신·금융	3.8	3.8	5.7	3.5	2.9	3.4	1.4	2.7	13.1
전기·가스	9.1	9.6	-2.2	-3.3	-4.2	3.3	11.1	12.4	0.3
운수·창고	3.7	3.0	4.8	2.3	-0.2	0.6	0.8	2.5	6.0
정보·통신	6.4	6.2	9.2	6.0	6.4	4.2	-0.4	0.7	4.0
금융·보험	-0.4	1.7	3.7	3.7	5.6	8.5	4.4	4.6	2.8
경기 전기·운수·통신·금융	2.1	4.0	6.3	4.1	6.0	5.9	1.3	4.9	14.0

* 전산업 취업자 대비(%), '25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탈,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기도 전기·운수·통신·금융업 취업자는 3/4분기에는 불과 1.3%(1.4만명)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는데 4/4분기에는 4.9%(5.1만명) 증가로 증가세를 회복
- 경기도는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의 비중이 크므로 정보통신업과 금융보험업 회복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됨
 - 정보·통신업에서는 전국 취업자의 44%는 서울, 33%는 경기도로* 수도권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금융·보험업 역시 서울에 32.6%, 경기도에 21.4%에 분포할 정도로 수도권 집중(* '24년 하반기,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의한 결과)
- 실제로는 전국 추이에서 정보·통신과 금융·보험의 회복은 완만하며 4/4분기의 회복은 경기회복에 따른 운수·창고업의 성장에 크게 기인하였으므로 경기도의 취업자 증가에서도 경기회복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도소매·숙박음식업 동향도 4/4분기 경기 회복을 시사

5)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 전국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취업자는 4/4분기에 전년비 3.1%(35만2천명) 증가하여 3/4분기의 4.1%(46만9천명) 증가폭을 대체로 유지하였으나, 경기도는 3/4분기 2.7%(8.2만명) 증가에서 4/4분기에는 0.5%(1.7만명) 증가로 증가폭이 축소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은 제조업과 더불어 4/4분기 경기도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주요인

- 전국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보건 및 복지업 취업자이며, 그 중에서도 공공부문에 속하는 사회복지업 취업자이므로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는 경기변동과는 무관한 경향이 있음[그림 2-2A]
- 전국 보건·복지업 취업자 전년비 증가는 (’25.1/4) 174천명→(2/4) 222천명→(3/4) 290천명→(4/4) 261천명으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며 증가율도 4/4분기 8.9%로 매우 높은 수준
- 4/4분기 보건·복지업의 취업자 증가(26.1만명)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체 취업자 증가(전년비 35.2만명)의 약 3/4을 차지
- 보건·복지업을 제외한다면 4/4분기 전국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전년비 증가는 1.1%(9.1만명)에 불과

<표 3-5> 전국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 취업자 증가율

(단위: 전년 동기비, %)

전년 동기 대비	2024				2025				비중*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전국 사업·개인·공공	1.1	0.2	1.3	2.0	3.1	4.0	4.1	3.1	40.9
부동산	-4.1	-2.8	-4.7	0.8	-1.2	-0.4	6.5	1.5	1.8
전문·과학·기술	6.3	2.0	5.2	5.7	5.1	7.9	3.5	-1.3	5.1
공공·행정	5.3	1.5	2.8	2.7	4.1	2.6	0.1	-0.1	4.6
교육	-1.2	-2.7	0.4	4.5	2.3	3.7	2.4	0.7	6.8
보건·복지	2.7	3.6	2.9	2.4	6.2	7.4	9.6	8.9	11.0
스포츠 여가	2.4	1.9	3.1	0.6	2.8	1.1	7.5	12.1	1.9
개인서비스	-0.7	0.1	-0.3	1.2	2.1	2.0	1.1	-0.1	4.0
경기 사업·개인·공공	1.2	-1.2	0.9	1.6	3.4	4.3	2.7	0.5	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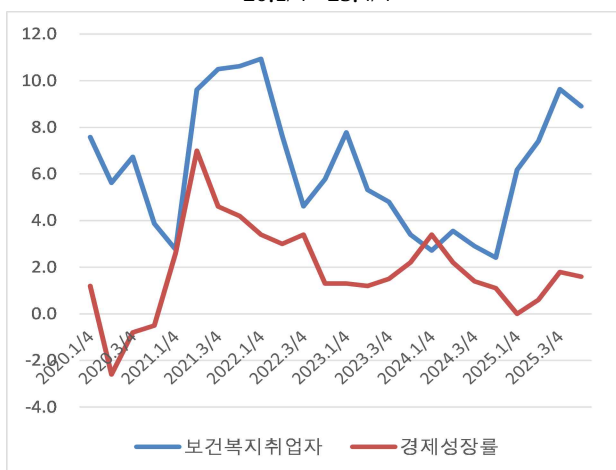
* 전산업 취업자 대비(%), '25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탈,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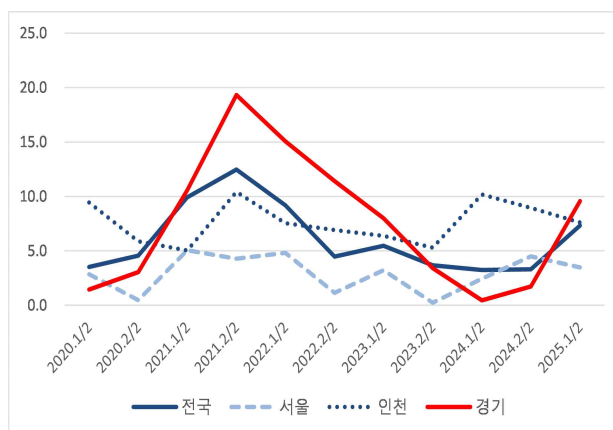
- 경기도의 4/4분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는 전년비 0.5%(1.7만명)으로 3/4분기의 2.7%(8.2만명)에 비하여 크게 축소되었는데, 4/4분기의 취업자 증가폭 축소 역시 경기적 요인보다는 보건복지 취업자에 의한 결과로 유추됨

- 경기도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추이를 살펴보면 ‘24년부터 증가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5년 상반기에 정점에 도달하고 하락<표 3-5>
- 경기도의 세부 산업별 취업자수를 반기별로 파악할 수 있는 다른 표본조사인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의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은 ‘25년 상반기에 크게 상승하였는데 그 이유는 보건복지업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그림 2-2B]
- ※ 그러나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는 현재 ‘25년 상반기까지만 이용 가능하며, 취업자 동향 통계가 기반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는 서로 다른 표본을 사용하므로 특히 시도별 세부 통계에서는 상당한 격차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므로 ‘25년 상반기의 높은 취업자 증가율이 보건복지업의 취업자 증가에 기인하였다는 점으로부터 추론한다면 ‘25년 하반기의 취업자 증가율 하락 역시 보건복지업 취업자 증가폭 축소에 기인하였을 것이며 특별히 경기도의 경기 부진에 기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함

A. 전국 보건·복지 취업자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20.1/4~'25.4/4



B. 시도별 보건·복지 취업자 전년비 증가율(%)
'20.상반기~'25.상반기



자료: 통계청, KOSIS 통계포탈,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그림 2-2] 전국과 경기도 보건·복지업 취업자 증가